

예술교육과 현실과의 접촉국면 넓히고 다변화해야

최 진 욱 ·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 대해 얘기할 때

최근 한 미술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미술인 1위는 이중섭, 그리고 7위는 조영남이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미술인들의 이름을 하나도 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미국에서 조사해도 1위는 피카소, 안소니 퀴이 10위 안에 들거라며 과녁치 말라고 충고하였다.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미술인들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 가장 미술계에 공헌한 정치인으로 김종필을 꼽았다. 미술인들의 이런 의식수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의 그 필자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진다. 미국에서 조사해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정권의 몸통이나 다름없었던 정치인을 단지 그가 취미로 유화를 즐겨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미술계에 공헌한 정치인 1위로 뽑을까?

한 사회의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 대해 얘기할 때, 교육인프라에 대한 차분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이 글은 상식과 당위성에 대해 다소 흥분조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사실 그런 말투와 글은 누구나 싫어할 테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담론적 한계를 이루는 전선이 존재한다. 이것이 단지 교육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때문이다. 아무튼 사회 개혁과 아울러 우리 미술교육의 현장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사회의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 대해 얘기할 때, 내 머리 속에 우선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그녀)가 '사회적 분별력(김규향은 교양을 이렇게 정의했다)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미술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밟게 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치원·초·중·고 시절 미술수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미술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대입

시준비를 하고, 미대에 합격해서 미술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예술가 지망생에게 '실기' 위주의 교육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능시험을 통해 국어·영어 등 기초적인 지식교과의 능력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나, 이것으로 우리가 사회와 문화를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확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에는 그 곳의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철학적 소양과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에 관한 난해한 논술문제들이 나오는데, 거의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이다("대학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대화가 가능해야 하는구나"하며 기가 죽게 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유도하려는 교육부 방침 수정되어야

무엇보다 초·중등 공교육의 현장에서 미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폭넓게 전염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술은 '파인아츠'의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에선 미술이 여전히 전문적인 실기를 연마하는 시간쯤으로 오해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미술은 최소한의 '시각적 리터러시 (Image Literacy)'를 포함한, '문화적 리터러시' (Cultural Literacy)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해득력이 없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미술은 필수과목으로서 이런 교육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해, 전문성(직업성)을 유도하려는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선택적 전문교육만으로는 전문예술인마저도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교양을 쌓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것은 교과과정표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미대교수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개 우리의 미술대학 교수들은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 교수들은 구색을 맞춰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작

- 문제는 대개의 작가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인문적 지식을 포함하여, 상식 수준의 '사회적 분별력'에조차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철저히 지적인 대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미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르네상스시대를 비롯한 과거의 미술가들에 비해 현대의 작가들은 평균수준의 교양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미술평론가 알랭주 프로와는 일찍이 갈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인문적 지식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이고,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사회적 분별력 - 교양'의 문제는 또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작가들이 자신의 관심을 사회로부터 절연시키게 된 건,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일제 강점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것이 타당하겠다. "우리에겐 공공의 공간이 없었다"(김용옥) 해방이후에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아온 군부독재 아래에서 공공의 공간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작가들에게는 개인과 자신의 작품 세계만이 오로지 관심사였으니, 사회적 분별력 따위가 관심이 있었을 리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사회로부터 미술을 고립시킨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서구의 예술가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공공의 공간을 되찾아야만 하는 본원적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민주화와 함께 대중문화의 만개를 맞으며 다시금 공공의 공간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 정말로 사적인 공간이 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함양미달의 설문조사가 들이대진다면, 미술계에 공헌한 정치인 - 김종필 1위라는 답이 예사롭게 나오는 것이다.

도대체 예술가가 왜 있으며, 왜 예술이 존재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다. 아무리 촌스럽게 보여도 예술의 사회적 의무를 빼고 우리 사회의 바람

젊은 예술가들이 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장래는 한없이 불투명하다. 아마도 자비를 들여 개인전 준비를 하거나, 공모전을 두들겨 보는 일, 혹은 대안공간들에 포트폴리오나, 전시계획서를 내는 정도가 전부일텐데, 이 모든 것은 생활의 궁극적 조건이 되는 작품의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들이다.

직한 예술가상을 얘기할 수 없다. 아무리 근대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눈앞에 뻗어 보이는 현대가 계속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우리의 현대미술을 말하는 키워드는 바로 ‘공적 공간의 회복’이다.

요즘 미술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 영화 등 개인적 취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미대를 다닌 선배들이 그들을 나무랄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극도로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단지 타율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일 뿐이다(현재의 자율적 개인주의와 비교하면 질적 수준이 오히려 떨어질 뿐이다).

젊은 예술가들이 연착륙할 사회적 인프라 없어

순수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예술가의 꿈을 안고 미대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들은 예술가가 받아야 할 기초적인 조형교육과는 유리된 채 외국의 석고 인물상 앞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미대입시라는 괴물 앞에 감성의 민감한 부분을 내주고 합격은 했지만, 이들 젊은 예술가들의 무의식 속에 ‘그림 그리기’는 잊어야만 하는 상처일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리한 신입생의 경우이고, 아예 그런 입시 그림 그리기를 예술가가 당연히 밟아야 할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삼아 입학 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걸 알고도 대다수의 미대교수들은 앞의 영리한 학생들처럼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대입시의 첫 시간은 이렇게 시작된다. “학원에서 배운

● 건 있어라”

● 미대입시 수험생의 성장배경은 미술대학의 교육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만,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졸업 후의 조건이다. 미대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 따라 정확한 통계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에, 약 3분의 1은 외국유학 길에 오르고, 3분의 1은 국내 대학원에, 3분의 1은 취직이나 학원 아르바이트 등, 생활 전선에 나가지만 그 절반은 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작가가 되진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지나간 (작가)유보의 길 앞에 던져지게 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가 이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장래는 한없이 불투명하다. 아마도 자비를 들여 개인전 준비를 하거나, 공모전을 두들겨 보는 일, 혹은 대안공간들에 포트폴리오나 전시 계획서를 내는 정도가 전부일텐데, 이 모든 것은 생활의 궁극적 조건이 되는 작품의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들이다.

● 우리에게 미술시장은 없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훌륭하더라도 왜 작품판매를 기대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미술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경매제도나 미술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통해 미술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호언하지만, 이것은 유명작가나 작고작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데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미술인들은 작품이 훌륭하더라도 왜 팔리는 걸 기대할 수

없을까? 왜 대답하게 “나는 작품에 자신이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을까?(사실 이견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인데 말이다).

우리 미술엔 미술작품을 평가해 줄 눈이 없다. 고객도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화랑주도 눈이 없다. 단적으로 IMF 이후, 절반가격도 받을 수 없는 작품을 사고판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화랑주들은, 작가들이 이중가격제를 통해 작품을 팔아서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작가 탓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신의 눈을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면 남의 눈이라도 믿어야겠지만, 정작 우리미술에 미술비평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아무튼 우리에게 미술시장은 없다. 작품을 평가해 줄 미술비평 체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의 10배 이상의 미술인들이 매년 배출되지만, 누구도 작가이길 멈추지 않는다.

미술인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며 끝으로 미술인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해 보자.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만화와 자신의 작업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화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와 연관되어 스토리 구성을 위한 문학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거기에 더해, 필름작업 전반에 관한 것을 비롯한 음악·음향 효과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 독일과 같은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의 회화 위주의 수업과정과 교수진으로부터는 취향에 대한 비교 외에는 배울 것이 없으며, 심하면 실험용 쥐 취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견 새로운 매체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 학생이 전통적인 유희만을 그리길 원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다. 대학교육은 친절하게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백화점식 종합세트 강의를 평등하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는 학생개인의 특성과 희망이 존중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은 세심한 카운슬링 제도를 도입하여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학생들의 전공 졸업학점을 관리해 주는 방식으로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일부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수전공제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이것이야말로 다양성을 통하여 창조적인 예술가를 기르는 방식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식을 가진 정상적인 교양인이 되어 공공의 영역을 생각하며 예술행위를 하는 예술가를 길러내는 교육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한다면 소용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해, 박찬경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개방적인 주요 예술대학들이 교수들의 정체현상을 타계하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예술가 거주프로그램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부 작가 초빙을 상설화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 대화상대의 목록에 각급 미술학교 교사는 물론, 어린이·노인·정치가·목사·정신병자·교도 재소자·다양한 인문학자·기업가·환경운동가·경찰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예술교육과 현실과의 접촉 국면을 넓히고 다변화하는 것은 예술과 삶의 일치라는 오래된 미술의 숙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